

일본 물류비의 트렌드와 산정기준

— 日本 拓殖大學 經營經理研究所 客員研究員 홍진원
— 拓殖大學教授 MAKOTO ASHIDA(芦田誠)

(1) 물류비의 트렌드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제품(Product), 가격(Price), 판매 촉진(Promotion), 장소(Place), 4요소가 중요하다고 지적 한 것은 1960년 미국의 E.Jerome McCarthy(미시간 주립 대학 교수)였다.

이른바 Marketing Mix라고 할 수 있다. 마케팅믹스의 4 Ps 중「장소(Place)」에 관계하는 것이 물류(Physical Distribution)다.

일본은 1990년대말 미증유의 불황에 빠지고 물류가 제3의 이윤의 근원으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물류의 컨셉으로는 서플라이체인(공급체인)을 꼬챙이에 꿰듯이 하여 물류 전체의 최적화와 비용절감, 고객만족(CS)의 향상을 꾀하는 SCM이 유행하였다. ①관계기업간 정보의 공유와 파트너십(협력체제), ②재고 압축, ③고속화(스피디한 조달, 보관, 배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도표 1>은 일본 로지스틱스 협회(JILS)의 「일본의 GDP에 대한 마크로 물류비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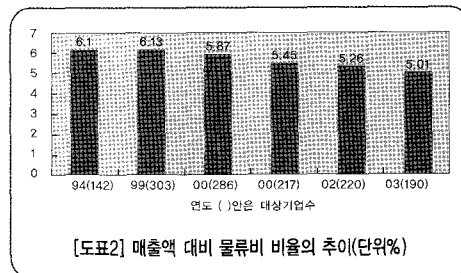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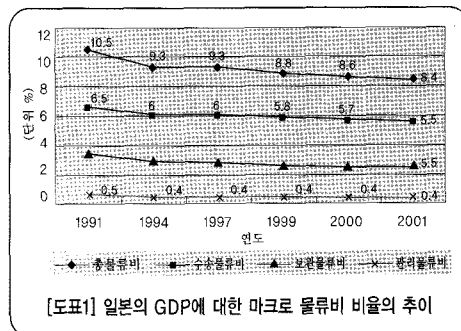
일본의 GDP총물류 비용의 대비는 1991년에 10.5%였지만, 2001년에는 8.4%로 저하됐다. 물류비용의 내역에서는 관리비용이 거의 변하지 않는데 비해 수송비용이 6.5%에서 5.5%로, 보관 비용이 3.5%에서 2.6%로 저하된 것이 눈에 띈다.

<도표 2>는 일본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94년에 6.1%였던 것이 2003년에는 5.1%로 저하됐다. 일본의 마크로, 미크로의 물류 비용도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90년대 후반의 디플레이션 경제속에서 제조업의 물류 아웃소싱 증가, SCM의 구축을 통한 물류 효율화의 결과로서 파악할 수가 있다.

다만, 기업의 물류 비용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기업이 사외에 위탁하고 있는 물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의무시되고 있는 유가증권





보고서의 손익 계산서에 기재된 지불운임이나 지불보관료라고 하는 계정과목의 합계로 나오지만, 사내에서 물류를 하고 있는 자사 물류에 대해서는 어렵다.

예를 들어, 자사에서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사 창고비라고 하는 계정과목이 없기 때문에 그 창고에 드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도 광열비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게 된다. 물류 비용은 각 기업에 따라서 계산 범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도표1>과 <도표2>로 나타낸 일본 로지스틱스협회 조사는 일단 물류 비용의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만 질문에 응답한 기업이 대기업인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일본 물류비 산정의 역사적 경위

일본이 물류비용기준을 통일하여 산출하려고 한 시도는 중소기업청이 최초다.

제1차 오일쇼크가 지나간 이듬해,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이 끝을 맞이한 1974년 6월에 재단법인 유통시스템개발센터에서 「물류 비용 산출 매뉴얼 작성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성과가 1975년 3월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물류비용 산출 매뉴얼-도매업을 위한

유통비용산출-」이라고 제목을 붙여 공표되었다. 그 중심적 내용은 관리회계의 일환으로서 새롭게 물류비용을 산정하는 방법과 재무제표로부터 물류비를 추출하는 방법을 구별해, 중소기업청의「중소기업의 원가지표(매년 발표)」에서 물류비용을 추계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물류비용 산출의 통일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표되고 있는 것이 1977년의 운수성의「물류비용산정통일기준」이다.

이것에 따르면 비용의 분류 방법으로서 ①영역별(조달, 사내, 판매, 반품, 폐기, 생산 물류는 대상 제외) ②기능별(포장, 보관, 하역, 유통 가공, 수송, 정보 유통, 물류 관리) ③지불 형태별(자사 물류비, 위탁 물류비)로 구분해 파악 하도록 되었다.

일손부족에 의한 인건비 상승이나, 다품종 소량다빈도 물류에 의한 수송비의 증대가 계속되고 있던 1992년, 물류비용의 삭감 뿐만 아니라 투입물로서의 물류 비용과 산출물로서의 물류서비스와의 비율을 향상시키는 물류 효율화에 의해 제3의 이윤을 실현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발표되었던 것이 상공부의 「물류 비용 산정 활용 매뉴얼」이다. 상공부(현 경제산업성)의 물류 비용의 분류와 체계는 <도표3>과같이, ①형태별 ②영역별 ③기능

[도표3] 경제산업성의 물류 비용의 분류와 체계

대상기업	물류비용 매뉴얼				
	재무회계 형태별	영역별	기능별	주체별	變因별
하 주 제조업 판매업 유통업	매상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특별경비)	조달물류비 사내물류비 판매물류비 반품물류비 회수물류비 폐기물류비 판매물류비(광의)	수송비 보관비 포장비 유통가공비 정보처리비 물류관리비	자가물류비 지불물류비	변동물류비 고정물류비
업 자 운송비 창고비 그외					

출처 : 西澤脩(おさむ), 物流コスト・マニュアル, 中央経済社, 1992年, P.81

별 ④주체별 ⑤변동/고정별(變動別)물류원가 계산의 5개로 나누어 진다.

각각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형태별 물류원가계산

재무 회계상의 비용 분류를 기본으로, 앞에서 기술한 실제 원가중에서 물류 비용 부분을 추출한다. 다만, 감가상각비와 금리는 재무 회계와는 달라, 특별 경비로서 별도 계산한다.

② 영역별 물류원가계산

재무 회계상의 재료비 또는 구입 상품중에서 물류 비용 부분을 추출해 이것을 조달물류비라고 한다.

또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중에서 사내 물류비, 좁은의미에서의 판매물류비, 반품 물류비, 회수 물류비, 폐기 물류비를 추출해, 넓은 의미에서의 판매물류비라고 한다.

③ 기능별 물류원가계산

형태별 물류비를 수송, 보관, 포장, 유통가공, 정보처리, 물류 관리의 각 물류 기능과 연관되어 개별비와 공통비로 크게 나눈다.

그 다음에 개별비는 해당 물류 기능에 직접 부과 하고, 공통비는 관계되는 물류 기능에 일정한 배부기준으로 배분한다. 양자를 계산해 기능별 물류비를 산정한다.

④ 주체별 물류원가계산

기능별 물류비 중 자사가 물류시설·기자재를 소유하던지 리스 해서 물류를 하는 경우의 비용이 자가 물류비이다.

자가 물류비에 대해서는, 당 메뉴얼로 산정·관리·활용을 하고 있다. 총 물류비용은 지불 물류비와 자가 물류비를 계산해

요구하게 된다.

⑤ 변동비/고정비별 물류원가계산

물류비용을 변동 물류비와 고정 물류비로 분류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계정과목마다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하는 것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비목은 요소별 분해법, 비율 안분법, 정액 공제법, 살포 도표법, 최소 제곱법 등에 의해 나뉜다.

경제 산업성의 메뉴얼에서는 물류 비용을 금액 뿐만이 아니라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물류량과 단가로 나누고 있다. 또 물류 서비스의 비용으로서 예를 들어 다빈도 수송, 긴급 수송, 소량단위수송 등의 산정 방법도 나타내고 있다.

계속적으로 같은해 1992년, 물류 비용 관리가 뒤쳐져 있는 중소기업전용으로 중소기업청이 「알기쉬운 물류비용 산정메뉴얼」을 작성해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기업이 통일적인 기준으로 물류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고는 아직 단정하기엔 이르다.

기업의 관점으로 보면 자사의 물류 비용의 움직임이 시계열로 알면 좋은 것으로, 물류 비용의 범위가 경영에 있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의 테두리를 넘어 업계, 관계정부로부터 한층더 보급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물류**

